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3

2013 <http://www.ucac.or.kr>

사랑이 아름다운 콘서트

Sweet Concert

유명 뮤지컬 배우를 공연캐릭터가 아닌 실재로 만나다!!!

공연 안에서 극중 캐릭터로만 만날 수 있는 뮤지컬배우, 하지만 스위트콘서트에서는 마치 옆집 오빠나 친구를 만나는 듯한 느낌으로 배우와 만나볼 수 있다. 스위트콘서트는 제목그대로 관객에게 편안하고 달콤한 추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공연이다.



정신아



이경수



조형균

낭만파 음악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는 힐링 콘서트

인간으로서, 음악가로서 겪어야 했고, 감수해야 했던 사랑과 이별, 기쁨과 슬픔, 성공과 좌절, 성공을 향한 집념과 시련, 그리고 죽음까지를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알아보고 느껴보는 힐링 콘서트.



혜설/이현석



피아노/박애린



바이올린/박에벤



첼로/박에셀

Morning Concert

Power Classic

<탄생 200주년 기념> 오페라의 황제 베르디

조윤범의 파워클래식의 가장 큰 장점은 클래식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이나 교과서에서만 보았던 클래식장르를 다양한 멀티미디어자료나 실제 음악을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들려주어 쉽게 편하게 클래식에 입문 할 수 있다



소프라노/서운정



테너/김규욱



해설/조윤범



첼로/임이랑



바이올림/박소연



비올라/김희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C / O / N / T / E / N / T / S



08

- 04 기획공연 | 스위트 콘서트
모닝콘서트
조윤범의 파워클래식

- 10 시립예술단 공연 | 시립합창단 2013 합창축제
시립교향악단 제163회 정기연주회
시립무용단 기획공연 "KD슈퍼스타"
시립교향악단 제164회 정기연주회 "명작 2"



13

- 17 기획전시 | 야외조각 상설 초대전
- 20 예술을 말하다 | 세계의 문화도시
이탈리아 오페라
재미있는 미술사여행
예술축제를 찾아서
모차르트 음악의 힘



26

- 30 문화의 향이 있는 삶 | 아트 클래스
- 32 공연·전시가이드 | 3월의 공연·전시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년 3월호 통권 162호

발행처 |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 (달동 413-13)
T.052-226-8241 홈페이지 <http://www.ucac.or.kr>

발행인 | 이형조 편집인 | 안종철

기획·편집팀장 | 박용하 기획·편집 | 박용운, 박영진, 고순영, 권혁민, 김내영
디자인·제작 | 예성인쇄기획 T.052-227-3884

Sweet Concert Season 6

정선아의 뮤지컬갈라콘서트

2013. 3. 7(목) 저녁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권 : 전석 15,000원 (회원 30%, 단체 20%할인)
관람연령 : 중학생 이상

● 프로필

렌트, 맘마미아, 지킬&하이드, 헤어화,
나인, 제너두, 드림걸즈, 모차르트,
아이다, 아가씨와 건달들, 에비타,
광화문 연가

제2,3회
더 뮤지컬 어워즈 여우조연상(2008, 2009)
제4회
더 뮤지컬 어워즈 인기상(2010)
제16회
한국뮤지컬대상 인기상 (2010)
2011년
골든 티켓 어워즈 뮤지컬 여우주연상(2012)



스위트콘서트 시즌6

(제작:울산문화예술회관, 극단 쿨라)

2009년부터 시작된 스위트콘서트는 울산문화예술회관 자체제작공연으로 2012년에 시즌5를 거쳐 2013년 시즌6를 맞이하게 되었다. 4년간의 진행되었던 스위트콘서트는 이미 이 공연을 통해서 쟁쟁한 스타급 뮤지컬 배우들이 다녀갔다.

뮤지컬배우 백재현, 강효성, 김선영, 홍지민, 김호영, 최정원, 전수경에 이어 2013년에는 국내 대형뮤지컬에 빠지지 않고 최정상급 배우로 칭송받는 정선아와 재치있는 입담과 연기력으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조휘가 캐스팅되어있다.

상,하반기 총6회로 계획된 스위트콘서트는 정선아와 조휘가 각각 3회씩 맡아서 진행한다.

유명 뮤지컬 배우를 공연캐릭터가 아닌 실제로 만나다!!!

공연 안에서 극중 캐릭터로만 만날 수 있는 뮤지컬배우, 하지만 스위트콘서트에서는 마치 옆집 오빠나 친구를 만나는 듯한 느낌으로 배우와 만나볼 수 있다. 스위트콘서트는 제목그대로 관객에게 편안하고 달콤한 추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공연이다.

주옥같은 유명 뮤지컬 넘버들!!!

"영화음악은 옛 여인의 향수이다"라고 말했던 세계적인 영화광 장 퓌크 고다르...

스위트콘서트에서 유명 뮤지컬 배우가 뮤지컬 속의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들을 들려준다면 그 뮤지컬을 봤을 때의 감흥을 또다시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공연의 추억을 스위트콘서트로 정리하자.

배우들의 진솔한 이야기들! (좌충우돌 실수담, 배우가 되기까지...)

배우들이 들려주는 무대 뒤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문다. 수동적인 관람공연이 아닌 무대와 객석이 동화되는 자연스러운 만남!!



이경수

뮤지컬 라이온 킹 (일본 극단 시키)
마이 페어 레이디, 지붕위의 바이올린,
두 번째 태양, 어쌔신, 미스 사이공,
햄릿, 설록 홈즈, 연극 갈매기, 줄리어스 시저, 드라마 대물, 영화 가비 외.



조형균

뮤지컬 찰리 브라운, 그리스,
자명고, 렌트, 달고나, 미남 이시네요, BKLYN 외.



Morning Concert Season 6 불멸의 클래식
‘낭만파의 전설들’

2013. 3. 28(목) 오전 11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권 : 전석 7,000원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입장가

- 해설 음악평론가 이현석
- 연주 클레시스 트리오 Klesis Trio





낭만파 음악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는 힐링 콘서트

19세기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낭만파 시대의 작곡가들, 음악사에 길이 남을 천재 작곡가이자 지휘자이며, 바흐 음악의 수호신이었던 멘델스존, 낭만파 시대 독일 음악계의 멘토이자 지도자였던 슈만, 여성적인 섬세함으로 피아노 음악의 신기원을 이룩한 쇼팽, 베토벤의 계승자로서 바그너와 함께 낭만파 시대를 상징하는 양대 산맥이었던 브람스. 각기 다른 음악성과 카리스마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들 네 거장 작곡가의 음악에 감춰진 진실과 드라마를 만난다!

인간으로서, 음악가로서 겪어야 했고, 감수해야 했던 사랑과 이별, 기쁨과 슬픔, 성공과 좌절, 성공을 향한 집념과 시련, 그리고 죽음까지를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알아보고 느껴보는 힐링 콘서트.

해박한 지식과 촌철살인의 멘트로 명작을 더 빛나게 해줄 토크 & 라이브 콘서트

베스트셀러[열려라 클래식]과 [이럴 땐 이런 음악]의 저자이자 KBS [명작스캔들]에 출연했으며, [EBS 해외 특선공연]의 진행자였으며, 현재 KBS 임백천의 라디오7080, 이현우의 음악앨범 등의 각종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유의 입담을 과시하고 있는 음악평론가 이현석이 들려주는 경쾌하고 재미있는 해설!

25년 동안 평론가로 활동해온 이현석은 음악계의 대표적인 컬렉터로도 유명하다. 그만큼 오랜 세월 자료 수집에 열정을 바쳐온 그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을 방문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통해 방대한 음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차별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음악의 엑기스만을 생생하게 전해 주는 해설을 들려줄 것이다.

낭만파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탄생한 클레시스 트리오의 힐링 콘서트

세계 최대의 클래식 무대인 독일에서 낭만파 음악을 전문으로 연주하기 위해 결성해 8년을 이어오고 있는 클레시스 트리오의 유연하고도 풍부한 감성의 연주를 만난다!

독일에 유학중이었던 박애린[피아노] 박에벤[바이올린] 박에셀[첼로] 등 세 자매가 결성한 클레시스 트리오는 독일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독일 현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뉘른베르크, 로스톡, 본 등지에서 공연하며 호평을 받았다. 2010년 귀국한 뒤 현대 음악과 탱고 음악으로까지 레퍼토리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으며, 솔리스트로 각자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본 공연에서는 각 작곡가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맞춰 변화무쌍한 연주를 들려줄 예정. 예컨대 멘델스존의 고결함, 슈만의 소박함, 쇼팽의 섬세함, 브람스의 자유분방함을 디테일하게 표현하면서 순도높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울산문화예술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음악회

조윤범의 파워클래식

2013. 3. 30(토) 오후3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 전석 1만원

할인 : 유료회원 100% (일반회원 2매, 가족회원 4매, 청소년 및 단체회원 1매까지)

초·중·고교생 50% 할인

예매 : 052)275-9623 www.ucac.or.kr

- 연주 조윤범(Vn.1) 박소연(Vn.2) 김희준(Va.) 임이랑(Vc.)
- guest Sop. 서운정 Ten. 김규욱

베르디, 그는 오페라의 황제이다. 더 훌륭한 오페라를 작곡한 사람들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공연되는 오페라는 베르디의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베르디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후세에 알렸다. 그는 자신의 편지를 별도로 직접 기록했고 회고록도 남겼다. 심지어는 피아노 수리공의 영수증을 통해서도 그의 어린 시절을 엿볼 수 있다. 그가 여덟 살 때, 집에서 가보로 여기던 작은 피아노를 수리하기 위해 수리공을 불렀다. 그가 고치고 간 피아노 수리 영수증은 현재까지 남아 있는데 아주 독특한 자료다. 왜냐하면 돈을 받지 않은 영수증이고 대신 이런 문장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수리하고 있는

동안 이 아이는 악기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의욕적인 아이의 자세를 본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되었으니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꼬마인 베르디도 대단하지만, 수리공이 더 위대해 보인다. 수많은 오페라의 걸작들을 작곡한 베르디는 자신의 마지막 오페라로 술주정뱅이 익살꾼을 다룬 희극인 <팔스타프>를 남긴다. 그는 악보 출판사에 이 원고를 넘기며 팔스타프의 말을 인용해 작별 인사를 남겼다. “모든 것은 끝났네. 언제까지나 자네의 길을 가게. 장난스러운 악당이여! 가면 밑에서 영원히 진실이기를 바라는 너의 길을 가게. 안녕히!”



진행/조윤범



소프라노/서운정



테너/김규욱

1 오페라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
‘La donna e mobile’ from “Rigoletto”

오페라 “리골레토”는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희곡을 원본으로 각색한 것을 베르디가 작곡했다. 이 곡은 경쾌함과 빠른 리듬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곡이다. 듣고 있으면 저절로 흥이 나는 곡으로 중후하고 무거운 오페라 아리아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이는 곡이다.

2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Brindisi’ from “La Traviata”

베르디의 3대 오페라 중 하나로 운명을 거스르지 못하고 순응하는 남녀간의 사랑과 희생, 이별의 아픔을 당시의 배경을 통해 사실적으로 만든 오페라다. 또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주되고 사랑 받는 최고의 오페라다. ‘축배의 노래’는 창녀 비올레타와 순진한 시골 청년 알프레도가 처음 만난 파티에서 서로 주고 받는 노래이다.

3 오페라 “운명의 힘” 중 ‘신이여 평화를’ ‘Pace, pacemio dio’ from “La Forza Del Destino”

운명의 힘에 당할 수 밖에 없는 한없이 약한 인간의 괴로움과 신에 대한 기도를 노래한 오페라다. 이 곡은 수도원

뒷산에 있는 동굴 암자에 숨어사는 레오노라가 너무도 큰 고통을 견디지 못해 “이 아픈 고뇌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주십시오”라며 신에게 노래하는 아리아다.

4 현악사중주 3악장
String Quartet in E minor 3rd mov.

이 곡은 베르디의 작품들 중 거의 유일하게 현재까지 연주되고 있는 실내악곡이다. 베르디가 오페라 <아이다>를 작곡하던 중 나폴리에서 휴식기간을 보내는 동안 만들어졌다. 그가 머물던 호텔에서 몇몇의 지인들만 초대해 비공식 공연으로 초연되었다.

5 오페라 “아이다” 중 ‘이기고 돌아오라’
‘Ritorna vincitor!’ from “Aida”

1869년, 수에즈운하 개통을 기념하여 당시 이집트 왕이 카이로에 건립한 오페라극장의 개관 작품으로 베르디에게 의뢰하여 작곡되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아버지가 싸우는 상황에 놓인 아이다가 복잡한 마음을 호소하는 아주 비통한 내용을 가진 노래이며, 아름다운 멜로디와 극적인 표현이 어우러진 명곡이다.

울산시립합창단 기획공연 **어울림**

2013. 3. 6(수) 저녁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5,000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적용)

- 출연 울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해송합창단, 중구여성합창단, KBS울산어린이합창단, 동구여성합창단, 태화강합창단
- 특별출연 콰르텟 쇼



지휘 / 구 천



울산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합창단체들과 함께 무대를 마련하여 지역합창단체의 활성화 및 울산 음악문화의 발전과 저변을 넓히고자 꾸준히 마련하고 있는 기획공연으로 올 해는 더욱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음악인들의 음악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바람으로 융화와 화합의 음악회를 선보이고자 한다. 참여하는 출연단체별로 2곡의 자유곡과 마지막 순서에서 전 출연진이 참여하는 연합합창을 연주한다.

지휘 / 천영진



• 중구여성합창단

지휘 / 하윤성



• 동구여성합창단

지휘 / 이승욱



• 해송여성합창단

• 태화강합창단

지휘 / 권정성



•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지휘 / 황성용



• KBS울산어린이합창단

지휘 / 황성진



울산시립교향악단
제163회 정기연주회

Italian

2013. 3. 8(금) 오후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회원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 지휘 정치용 (창원 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 바이올린 김응수 (한양대 교수)

● 모차르트 / 오페라 '돈 조반니' 서곡, 작품 527

- W. A. Mozart / Don Giovanni, K. 527: Overture

● 브람스 /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77

- J. Brahms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77

- I. Allegro non troppo

- II. Adagio

- III. Allegro giocoso, ma non troppo vivace

● 멘델스존 / 교향곡 제4번 가장조, 작품 90 '이탈리아'

- F. Mendelssohn / Symphony No. 4 in A Major, Op. 90, MWV N16, "Italian"

- I. Allegro vivace

- II. Andante con moto

- III. Con moto moderato

- IV. Saltarello: Presto





울산이 낳은 지휘,
유익음악계의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창원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정치용의 객원지휘

▲지휘/정치용
◀바이올린/김응수

2013년 3월 8일 새봄을 여는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제163회 정기연주회는 창원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으로 재직 중인 정치용의 지휘로 펼쳐진다. 정치용은 대한민국 최정상급 지휘자로 평가 받는 지휘자로 뛰어난 바톤 테크닉과 곡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 내는 통찰력 있고 깊이 있는 지휘로 단원들이 끌여가는 품격높은 음악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현재 창원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한국지휘자협회 회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지휘과 주임교수 등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로서 활발한 활동하고 있는 정치용이 들려주는 제164회 정기연주회에 많은 기대가 된다. 이번 연주곡목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 서곡으로 서막을 연다. 이 오페라는 경쾌한 2막으로 구성된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작품 중의 하나이며, 1787년 다 폰테의 대본에 의해 작곡되어 같은 해 10월 29일 프라하에서 초연되었다. 에스파냐의 호색 귀족 돈 조반니(돈 후안)를 주인공으로 한

것으로 탕아에다 무신론자인 돈 조반니는 사랑의 편력을 하던 중, 돈나 안나에게 추근거리다가 그녀의 아버지 기사장(騎士長)의 질책을 받고 결투 끝에 그를 찔러 죽인다. 그 후에도 시골 처녀 체리나를 유혹하는 등 못된 짓을 계속한 그는 묘지에서 기사장의 석상(石像)을 보고 만찬에 초대하였는데, 그날 밤 집으로 찾아온 석상을 보고도 누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자, 마침내 업화(業火)에 싸여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이다. 이어 울산이 낳은 국내 최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가 들려 주는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연주된다. 이 바이올린 협주곡은 브람스의 최대결작의 하나로 손꼽힐 뿐만 아니라 고금을 통틀어서 베토벤과 멘델스존, 모차르트, 차이콥스키의 작품과 더불어 최고의 바이올린 협주곡의 하나로 불리는 명곡이다. 베토벤과 차이콥스키도 브람스와 마찬가지로 평생 바이올린 협주곡은 하나밖에 작곡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바이올린 명곡이 모두가 똑같이 'D장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부에는 멘델스존의 교향곡 제4번 <이탈리아>가 연주되어진다. 음악의 풍경화가로 불리우는 멘델스존이 20대 초반에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하던 중 이탈리아를 떠올리며 쓴 교향곡으로 낭만적 색채가 가득한 교향곡이다. 그는 20대 초반이었던 1829년부터 1832년까지 4년 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곳곳을 여행하면 견문을 넓혔는데, 이곡은 로마에 머물 때 이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으며 이탈리아의 작열하는 태양 아래 빛나는 풍경을 서정적으로 그려내었다. 같은 방식으로 작곡된 교향곡 제3번 <스코틀랜드>보다 시기적으로 먼저 작곡되었지만 멘델스존 생전에 악보로 출판되지 않아 교향곡 4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이 곡은 2월 7일 내한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곡목이었기도 하다. 그 때의 감동에 동참하지 못한 클래식 매니아들에게는 다시 감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K.O 슈퍼스타

2013. 3. 22(금) 오후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5,000원

(회관회원 30%, 단체 20%, 문화바우처 50%할인)

- 안무 김상덕 (예술감독 겸 안무자)
- 출연 이정윤, 박상주, 박수정, 조인호, 노기현, 박성은, 김지은

프로그램

- 장고춤
- The cold song
- 그 곳에 산다면
- 탈의고백
- 여우여자
- 피에로의 눈물
- Alone Together
- 소고춤

장고춤(한해경류)

1990년대 초반 대정권번의 '김취흥' 이란 기생이 장고를 메고 들며 날며 소리를 하며 춤을 추었다는 기록이후, 신무용기의 '최승희' 에 의해 무대화 되면서 오늘날까지 홀 춤 및 군무로 추어졌다.
일명 교방 장고춤인 한해경류 의 장고춤은 민속춤사위를 기본으로 구성된 춤으로서 다양한 춤사위와 가락을 지니고 있으며 독특한 구성을 지닌 예술성이 높은 춤이다.

The cold song

내가 무너지면 거기 더 큰 내가 일어난다.
최선의 끝이 참된 시작이다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박노해- 길이 끝나 면 중에서...)

피에로의 눈물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아...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아
왜 그랬을까? 그땐 왜 그랬을까?
가진 건 없어도 난 너만 있으면 행복했는데
영원히 변치 않을 꺼라 는 약속...
아무런 힘도 없는 그녀를 때리며 웃고 있던 나를 용서 하지 마...
눈물 흘리지 마...

Alone Together

전 세계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조명 받고 있는 '소통'에 관한 이야기다. 상대방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스마트폰,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은 서로를 상당히 위하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반응'일 뿐이다. 함께 있지만 함께 있는게 아닌 사람들...
인간관계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주목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탈의고백

탈속의 감춰진 내면의 슬픔 광대의 한을 표현한 작품

그 곳에 산다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곳에...
안개가 걷히고 눈앞에 보일거 같은...
그 곳에.. 꿈만 같은 그 곳에...
오늘도 꿈에 취해 그 곳에 가 고 싶다.

여우여자

어린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아니 어쩌면, 여우가 어린왕자에게 길들여지길 원했는지도..
여우는 길들이기도 다스리기도 매우 어려운 동물이며,
그래서 흔히들 여자를 여우에 비유하곤 한다.
여우여자..
내 안에 자리 잡은 여우는 어떤 모습인가.
아니, 어떤 모습이길 바래져왔다.
여우는 진정 길들여진 것인가. 길들여진 척 살아가는 것인가..
당신의 여우는 어떤 모습인가?
이 시대의 여우에게 묻는다..

소고춤 (최종실류)

소고춤은 민속무용으로서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마당에서 노는 축제적 성격을 띠고 멋과 흥이 어우러진 장단을 치며 춤을 풀어나간다.
농악에서 벽구놀음의 독특한 춤사위와 가락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 하여 무대화시킨 춤으로 경쾌하고 절도 있게 몰아치는 춤사위는 굿거리- 자진모리-동살풀이- 휘모리 순으로 사물과 태평소 반주가 신명나는 춤을 이끌어낸다.





세르지오티엠포



울산시립교향악단
제164회 정기연주회

名作 II

'2013 교향악축제 개막공연 기념음악회'

이번 정기연주회는 4월 1일부터 16일간 펼쳐지는 2013 교향악축제에 울산시립교향악단이 개막공연으로 참가하게 된다. 이번 교향악축제는 특별히 예술의 전당 개관 25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코리안 심포니 등 전국 최고 기량의 오케스트라 16개팀만을 엄선하여 성대하게 개최되어지며, 울산시립교향악단은 당당히 4월 1일 첫 번째 팀으로 개막공연에 참가하게 된다. 이번 연주회는 4월 1일의 감동을 울산시민들에게 먼저 선사할 최고의 무대가 될 것이며, 완벽한 지휘법과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울산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온 마에스트로 김홍재와 울산시립교향악단이 들려주는 환상의 공연이 될 것이다. 이번 연주회의 첫 번째 곡목은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으로 이 곡은 St. Petersburg의 오페라 극장에서 1862년 11월 10일에 초연되었다. Ghislanzoni가 수정한 리브레토의 개정판은 1869년 2월 27일 밀라노의 라 스칼라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이 오페라는 베르디의 중기에서 후기로 옮겨가는 과도적인 작품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오케스트레이션에 있어서도 초기, 중기와는 달리 더 충실해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그너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다. 베르디는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 왕실 가극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상연된 바 있는 연극을 대본가 피아베에게 개작시킨 다음 작곡한 것이다. 이 내용은 리바스의 공작이 18세기 말엽에 스페인을 무대로 비극적인 운명의 힘으로 주인공들이 죽어 버린다는 줄거리이다. 이어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이 재미 첼리스트 다니엘 리의 협연으로 연주되어진다. 첼로 음악의 황제라 불리는 이 곡은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을 비롯해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던 미국 시대의 마지막 작품으로 1894~5년에 씌어졌다.

- 2013. 3. 29(금) 오후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회관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 지휘 김홍재(예술감독)
- 첼로 다니엘 리

- 프로그램
- 베르디 /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 드보르작 / 첼로 협주곡
- 프로코피예프 /
'로미오와 줄리엣'
제1, 2, 3 모음곡 하이라이트

체코의 시골에서 태어난 드보르작은 부귀영화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뉴욕생활이 불편했고 설상가상으로 젊은 날 사랑했던 여인이며 처형인 조세피나의 우환소식을 듣자 깊은 향수에 젖어 이 곡을 작곡하게 되었다.

애절하면서도 강렬한 선율과 활기차고 다양한 리듬으로 보헤미안의 감성과 정서를 전곡에 담은 드보르작은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불가능도 없다는 듯이 난해한 테크닉을 수시로 구하하고 있지만,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전혀 과장된 느낌이 없다. 교향곡적 전개와 풍요로운 악기론적 기법, 거대한 형식은 이 곡을 오케스트라와 첼로를 위한 교향적 협주곡으로 승화시키기 충분하였다.

2부는 프로코피예프의 발레모음곡 '로미오와 줄리엣' 제

1, 2, 3 곡 하이라이트로 대미를 장식한다. 러시아의 전통적 고전음악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작곡가로 평가받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곡가 프로코피예프는 여러 장르의 혁신적인 클래식 음악을 선보였다.

이 곡은 프로코피예프의 대표적 발레이자 현대 발레곡의 걸작으로 복잡하고 난해한 서구적 음악 경향을 버리고 1933년 러시아로 돌아온 직후인 1935년에 작곡되었다. 이 작품은 1940년(49세) 레닌그라드의 키로프 극장에서 초연되어 소비에트 문화사상 기념비적 사건으로 절찬을 받았다. 곡은 단순, 명쾌하며 선율이 아름답고 리리시즘과 로맨티시즘이 전편에 흐르고 있다. 관현악법은 절묘해서 극적 긴장감에 다이내믹한 활력이 넘친다.



**첼로의 거장 로스트로포비치의 최연소 제자,
데카 레코드와 독점 계약한 첼리스트 다니엘 리**

첼로의 거장인 로스트로포비치의 최연소 제자로, 전세계 클래식 연주자드의 꿈인 엘로우 레이블 데카 레코드와 독점 계약을 체결한 첼리스트 다니엘 리는 풍부하고 탄탄한 테크닉으로 음악적 깊이와 성숙함을 표현하는 다니엘 리는 여러 차례 연주회를 통해 국내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다니엘 리는 1990년 노스웨스트 챔버 오케스트라 주최 영 아티스트 첼로 콩쿠르에서 우승했고, 14세인 1994년 필라델피아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런던 위그모어홀에서 데뷔 독주회를 가졌다. 2001년 에이버리피셔 상을 수상했고, 커티스음악대학을 졸업한 후 전세계를 누비며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2010년에는 초 뉴욕 머킨홀에서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인 졸탄 코다이의 '첼로 솔로소나타' 연주를 선보였는데, '세인트 루이스 포스트지'는 "믿을 수가 없었다. 혼신의 힘을 다한 그의 연주는 모든 관객들을 일제히 흥분시켰고, 공연의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만들었다. 다니엘의 연주를 관람하게 된다면 누구나 그가 연주하는 음악과 그의 악기에 혼연일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감동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극찬을 받기도 했다. 또, 그는 미국에서 세인트 폴 챔버 오

케스트라와 제임스 맥밀란의 '첼로와 스트링을 위한 나무의 키스'를 협연했고, 그후 로스앤젤레스 챔버 오케스트라 객원 지휘자인 베르나르 라바디의 지휘 아래 세인트 루이스 심포니와 함께 차이코프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연주했으며,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예술을 위한 폴처 재단에서 주최하는 크세나키스의 노모스 알파 공연을 마쳤다.

첼로의 거장인 로스트로포비치의 최연소 제자로, 전세계 클래식 연주자드의 꿈인 엘로우 레이블 데카 레코드와 독점 계약을 체결한 첼리스트 다니엘 리가 이번 25주년 개관 기념으로 성대하게 펼쳐지는 2013 교향악축제 개막공연 협연자로 울산시향과 호흡을 맞춘다. 이미 2003년도 이후 이미 수차례 내한으로 국내에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는, 11살 때 '더 이상의 제자는 없다'고 공공연히 선언한 로스트로포비치의 선언을 반복하게 만들면서까지 특별한 제자로 삼았을 정도로 음악적 천재성을 인정받았다. 뛰어난 음악적 직관으로 과거 악보 속에 존재하는 작곡가들을 현재로 옮겨내는 다니엘 리는 박력넘치는 사운드와 풍부한 음색, 탄탄한 테크닉을 기반으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준비된 거장으로서의 음악적 깊이와 성숙함을 느끼게 할 것이다.



초청기획전시 야외조각 상설 초대전

**연중 상설 전시 추진으로 도심 속의 열린 문화공간 조성
전국 조각가들의 다양한 야외조각 작품 초청**

시민들에게 늘 열려있는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야외공간을 이용한 연중상설 전시가 열린다.

담장을 허물고 새롭게 조성된 예술의 숲 야외전시장에서는 조각전 외에도 설치미술, 서예 등불과 깃발전 등 다양한 기획전을 마련해 왔는데 올해에는 그동안 봄, 가을 중에 마련하였던 야외조각 전시를 연중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부산, 광주, 강원, 전남, 전북, 충남, 울산 등 전국 조각 예술 활성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국조각가협회 21명 회원들의 다채로운 야외조각 작품 42점이 총 3부에 걸쳐 각 115일씩, 345일 동안 전시될 예정이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 다양한 조각 작품들이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낼 도심 속의 문화 공간에서 가족과 친구, 연인들과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듯 작품을 감상하며 도시의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작은 여유와 즐거움을 느껴보는 시간되기를 바란다.

2013. 2. 4~2014. 2. 2 (345일간)

- I부 / 2. 4 ~ 5. 29 (115일)
- II부 / 6. 1 ~ 9. 23 (115일)
- III부 / 10. 11 ~ 14. 2. 2 (115일)

야외전시장

- 작품수 야외조각 총 42점
- 초대작가 총 21명(전국 17, 울산 4)
- I부 / 고석산 김왕현 김태인 김주호 박수용 정찬국 조무현
- II부 / 김종필 박수광 위재환 이완숙 이채국 조경훈 홍영표
- III부 / 김현호 도태근 유현우 이인행 이종용 조민길 황미옥

초청기획전시

전국 구상회화

초대전

2013. 3. 14~3. 25 (12일간)

제1,2,3,4전시장 (전관)

■ 작품 : 구상회화 100점

한국 구상회화의 현주소 한자리에서 감상 대작 작품이 주는 색다른 감동 선사

우리나라 구상회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단체인 '신작전' 회원들의 대형 구상회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국 구상회화 초대전」이 전시장 전관에서 펼쳐진다.

1983년 창립하여 대작전, 국제 교류전, 정기전 30회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구상회화의 대표적 단체로 인정받고 있는 '신작전'의 울산초대전으로 100호 작품 100점이 전시된다.

남녀노소 모두가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구상작품으로 지역에서 보기 드문 대작작품을 전시하게 되어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대형작품이 주는 색다른 감동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전국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 구상회화의 오늘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임과 동시에, 초대작가들 간의 상호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서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1 나원찬_그리움
- 2 손돈호_Spirit
- 3 최명영_행복

Arts Friend

Part.1 예술을 말하다

세계의 문화도시
이탈리아 오페라
재미있는 미술사여행
예술축제를 찾아서
모차르트 음악의 힘

Part.2 문화의 향이 있는 삶

아트 클래스

Part.3 3월의 공연·전시

3월의 공연·전시 일정



파르마 파가니니 음악당



이탈리아는 오페라 발상지답게 도시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페라극장이 많다. 하지만 오케스트라 단독 공연이 가능한 심포니 전용홀은 별로 없다. 오페라극장 무대 위에 음향 반사판을 설치해 음악회를 하는 방법이 있긴 하다. 하지만 오페라 시즌과 겹치는 가을과 겨울철엔 무대 마련에 골머리를 앓는다.

콘서트홀을 지으려 해도 도심에 남아도는 땅이 별로 없다. 그래서 떠오른 대안이 도심 근처의 버려진 공장 건물을 개조해 콘서트홀을 만드는 것이다. 로마 올림픽 공원에 들어선 아트센터 파르코 델라 무지카로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 렌조 피아노가 설계를 맡은 파르마 파가니니 음악당이 대표적인 예다.

파르마는 밀라노에서 볼로냐 행 기차를 타고 1시간이면 도착하는 인구 19만명 미만의 작은 도시다(밀라노는 135만명, 볼로냐는 38만명이다). 인구로 따져보면 국내 도시와 비교할 때 거제보다 작고 안동보다 크다. 중세 이후 성곽 도시에서 발전해온 터라 한 두 시간이면 걸어서 시내 곳곳을 두루 다닐 수 있을 정도다. 현지 사람들도 자동차 대신 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파르마는 도시 규모는 작지만 이탈리아의 어떤 도시도 부럽지 않을 만큼 높은 문화적, 경제적 수준을 자랑한다. 한 마디로 말해 '음악과 미술, 음식의 도시'다. 최고의 문화예술과 음식을 자랑하는 오감 만족의 도시다. 유럽 도시를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조사에서 여러 차례 상위에 랭크될 정도다. 경제적 수준도 밀라노에 버금간다. 도시 전체가 바빠 움직이지만 혼잡하진 않고 아담하지만 지루하지 않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는 무공해 친환경 도시다. 조금만 교외로 나가면 산과 평원이 펼쳐진다. 자동차로 한 시간이면 해변에 닿는다. 오래된 궁전이 있고 미술관, 박물관, 오페라극장이 있다.

레지오 오페라 극장에서는 매년 베르디 오페라 페스티벌이 열린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귀명창들이 매일 저녁 발코니석에 앉아 즉석 비평을 가하는 까다로운 극장이다. 올해 탄생 200주년을 맞는 베르디는 파르마 근교의 부세토 태생이다. 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도 이곳 태생이다. 파르마 음악원에는 베르디 오페라의 단골 대본 작가였던 아고리고 보이토의 이름이 붙어 있다. 테너 카를로 베르곤치가 이 음악원 출신이다.

파르마에는 세리에 A 소속의 축구팀 파르마 FC, 여자배구팀, 럭비팀이 활동 중이다. 파르마는 무엇보다도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음식인 파스타로 유명한 곳이다. 주변의 질 좋고 풍부한 농축산물로 일찍부터 식품가공업이 발달했다. 피자나 파스타에 곁들이는 파르마산 치즈(파르메잔 레자노)는 말 그대로 파르마에서 생산된 치즈라는 뜻이다. 여름철 멜론 조각과 함께 즐겨 먹는 생햄(프로슈토 디 파르마)는 돼지 뒷다리를 염장해 바닷 바람에 말리면서 몇 년간 숙성시킨 생햄이다. 유럽 식품 안전청은 2003년 파르마에 본부를 옮겨왔다. 파르마는 '이탈리아 요리의 수도'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식도락과 문화예술의 도시 파르마를 더욱 빛내고 있는 건물은 2001년 10월 문을 연 파르마 파가니니 음악당(L' Auditorium Niccolò Paganini)이다.



이 건물은 1899년부터 1968년까지 에리다니아 설탕공장이 있던 자리였다. 문을 닫은 지 30년이 넘도록 방치됐다가 콘서트홀로 말끔히 새단장했다. 파르마 시당국이 1999년부터 시작한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달콤한 설탕 대신 달콤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변신했다. 설탕공장을 가동할 때 흰 연기를 품어대던 굴뚝은 마치 기념탑처럼 그대로 남아있다. 총공사비는 1400만 유로(약 210억원).

에리다니아 설탕공장과 함께 공립 도살장, 농장, 바리야 파스타 공장, 전차역, 화력 발전소가 들어서 있던 주변 공장부지는 아름다리 나무와 화려한 분수로 꾸며진 공원으로 탈바꿈했다. 파르마 도심에서 도보로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다.

크고 작은 여러 개의 건물 중 가장 큰 공장 건물에 무대와 객석을 배치했다. 길이 90m짜리 직사각형 건물의 좁은 벽면을 완전히 헐어낸 후 유리 벽면으로 칸막이를 해 계단과 로비, 객석과 무대를 길다랗게 연결했다. 건물의 규격이 구두상자 모양의 전통적인 콘서트홀 건축 양식에 적합했기 때문에 공장 건물을 헐지 않았다. 기존의 벽면에 빗살 형태의 강화 콘크리트를 삽입했다. 지붕은 원래 건물 모양을 살렸으나 건물 구조나 음향 면에서 새 자재로 보강했다. 숲으로 둘러싸인 공원 내에 위치해 별다른 방음 시설을 할 필요도 없었다. 부속 건물엔 180석 규모의 실내악홀 겸 연습실과 화장실이 있고, 주변의 다른 건물은 컨벤션 센터로 꾸몄다.

로비로 연결되는 공원 입구로 들어서면 마치 양쪽 벽면과 지

방만 남은 거대한 터널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다. 객석이나 로비에서도 바깥 공원 풍경이 보이고 심지어 음악회 도중에도 공원의 야경을 즐길 수 있다. 무대 정면은 높이 14m, 너비 17m짜리 대형 유리다. 물론 연주자나 지휘자의 요청에 따라 무대 뒤 유리창에 블라인드를 내릴 수도 있다.

리카르도 무티 지휘의 밀라노 라 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개관 공연을 했다. 객석수는 780석이다. 콘서트홀로는 작은 편이지만 파르마 인구로 보면 적정 규모다. 그만큼 양질의 음악감상이 가능하다. 250㎡ 넓이의 무대는 대규모 오케스트라·합창단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크다. 평소에는 토스카니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상주 무대로 쓰고 있다.

‘파가니니 음악당’이라는 이름은 작곡가 겸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1782~1840)를 기리기 위해 붙였다. 파가니니는 이탈리아 제노바 태생이지만 파르마에서 음악 수업을 했고 연주 여행 끝에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한 다음 파르마로 돌아왔다. 파가니니는 파르마 시립 공원 묘지에 묻혀 있다.

건축가 렌조 피아노는 이탈리아 제노바 태생으로 1998년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키 상을 수상했다. 파리 퐁피두 센터(1977년),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1990년), 토리노 링고토 콘서트홀(1994년), 베른 폴 클레 센터(2006년) 등을 설계했다.

클_이장직

중앙일보 음악전문 기자를 역임하고 「위기의 아트센터」, 「레인보우 클래식」 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월간 객석)선임기자로 활동 중이다.

이탈리아 오페라4 베르디(II)



▲주세피나 스트레포니 -1845 초상화

베르디가 첫 아내와 두 아이들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다가 재기를 하게 된 작품 '나부코'는 그에게 작곡가로서 부활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음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되는 주요한 작품이다. 1842년 '나부코'의 라스칼라극장 초연시 주역 아버가 일레를 맡은 소프라노 주세피나 스트레포니와의 만남이다.

이 초연 당시만 해도 베르디는 신잡 오페라 작곡가였고 이탈리아에서 아주 유명한 소프라노였던 스트레포니는 최전성기를 막 지나고 있던 참이었다. 그녀는 베르디에게 오페라 작곡이나 극장가의 생리 등에 대한 많은 조언을 하였다. 그녀는 베르디가 오페라작곡가로서 발판을 굳히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둘은 이후 아주 친한 사이가 되어 좋은 상담자이며 조언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주세피나 스트레포니(1815~1897)는 이탈리아 롬바르디 지방의 로디에서 1815년 태어났다. 밀라노 콘서바토리에서 성악과 피아노를 공부하였고 1834년 오르페오 극장에서 프로성악가로 데뷔하였다.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가창실력으로 곧 유명해진 그녀는 수많은 팬들을 몰고 다니면서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1835년 오스트리아로 진출하여 비엔나 무대에서 많은 비평가들과 관객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유명한 소프라노로 승승장구하며 1839년 밀라노 라스칼라극장에 데뷔한다. 당시 유명 테너였던 모리아니와 사이에서 2명의 아들, 흥행사 메렐리와 사이에서 1명의 아들을 두었지만, 이 모두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사생아들이었

다. 이탈리아의 주요극장에서 도니체티, 벨리니, 루치니 등 벨칸토 오페라의 많은 주역을 맡아 활약하였지만 목소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서른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목소리에 문제가 생긴 것은 목소리를 너무나 혹사한 후유증 때문이었다. 처음 데뷔한 이후부터 집안에서는 소녀가장 역할을 해야 했고, 자신의 세 자녀를 혼자 부양해야 했으므로 조금도 쉴 틈이 없이 너무나 많은 공연에 무리를 감행하면서 출연을 할 수 밖에 없었다. 1844년부터 생기기 시작한 목소리의 이상 때문에 급기야는 1845년 팔레르모 공연에서는 청중들의 엄청난 야유를 들으면서 무대를 내려와야 했다. 결국 1846년 2월 이탈리아에서의 가수 생활을 접고 그 해 10월 파리에 음악교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 했던 것이다.

이즈음에 베르디와 파리에서 재회하게 된다. 베르디는 1846년 '제1차 십자군의 롬바르디아인'을 프랑스어 판으로 개작한 '에루살렘'을 파리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한다. 이즈음 약 2년간 파리에서 스트레포니와 동거를 하게 된다. '나부코' 이후 음악가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잠시도 쉴 틈 없이 바쁘고 힘든 생활에 지친 베르디는 스트레포니의

현신적인 뒷바라지를 받아 생활에 많은 안정을 찾게 된다.

이런 면은 베르디 작품에도 반영되어 많은 변화를 보이게 된다. ‘나부코’ (1842), ‘제1차 십자군 롬바르디아인’ (1843), ‘에르나니’ (1844), ‘포스카리가의 두사람’ (1844), ‘조반나 다르코’ (1845), ‘아틸라’ (1846) 등에서 보이던 애국심을 고취시키던 작품은 ‘레나노 전투’ (1849)를 끝으로 사라진다.

이후 ‘스티펠리오’ (1850) 같은 인간내면의 심리적인 갈등을 주제로 하거나, ‘군도’ (1847, 쉴러 원작), ‘맥베스’ (1847, 셰익스피어 원작), ‘해적’ (1848, 바이런 원작), ‘루이자 밀러’ (1849, 쉴러 원작)과 같은 문학작품을 원전으로 하는 오페라를 작곡하게 된다.

다양하게 주제를 다루며 오페라를 작곡한 결과 그때까지 베르디가 추구해온 간결하면서도 극적인 드라마 전개와 완전히 결부되어 1850년대에 서로 다른 성격의 베르디 중기 세 걸작이 탄생한다. 성격극 ‘리골렛토’ (1851), 성악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1853), 성격극과 성악오페라의 합성 ‘라 트라비아타’ (1853)가 그들이다. ‘이탈리아 국민오페라 3부작’이라 불리는 이 3편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 오페라극장의 가장 주요 레퍼토리에 속한다.

1848년 파리 혁명을 피해 이탈리아로 돌아와 고향 부세토 근처 산타아가타에 집과 농원을 구한다. 1849년 스트레포니와 부세토로 돌아왔지만 마을사람들의 태도는 아주 냉담하였다. 이미 국민적인 영웅으로 이름난 베르디가 정식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사생아를 3명이나 둔 여인과 동거하는 것에 차가운 눈길을 보낸 것이다. 이에 두 사람은 파리로 종종 갔으며 산타아가타 저택에 머무를 때는 이웃들과는 일체 교류를 하지 않고 두문불출하였다. 그들은 동거한 지 12년이 지난 1859년 사보아의 외딴 마을 콜론주에서 비밀리에 정식결혼식을 올린다.

1853년 한동안 파리에 머무르면서 선배작곡가 롯시니처럼 파리오페라극장에서 자신의 작품을 그랜드오페라로 성공 시

킬 야심을 가지게 된다. 1855년 파리오페라극장에서 프랑스 그랜드 오페라 양식으로 만들어진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가 초연되었지만 그다지 성공을 하지 못한다. 이 작품의 제작 기간 동안 베르디와 대본가 스크리베 사이의 갈등, 파리 오페라극장 측과 베르디간의 의사소통 부재 등으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결과였다.

이탈리아로 돌아와 피아베 대본으로 ‘시몬 보카네그리’ (1857)를 작곡하여 베니스 라 페니체극장에서 초연했다. 1859년 로마 아폴로극장에서는 프랑스풍의 그랜드 오페라와 이탈리아 오페라의 장점을 합한 걸작 ‘가면무도회’의 초연이 이루어진다. 이 공연은 오페라 사에 길이 남을 만한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

베르디는 스크리베 원작의 ‘가면무도회’ 대본을 이탈리아 대본가 안토니오 슴마에게 베르디 자신의 요구대로 다시 집필하게 하였다. 당시 초연 예정지였던 나폴리 시당국에서는 국왕의 암살을 주제로 다룬 이 작품에 대해 검열 허가를 주지 않았다. 과거에도 ‘스티펠리오’, ‘리골렛토’ 등이 그 주제 때문에 검열에 걸리긴 했지만, 공연 허가를 못 받을 정도로 제재를 당한 것은 이 작품이 처음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초연지를 로마로 옮겨 아폴로 극장에서 공연하게 되었다.

초연이 끝난 후 로마 아폴로극장의 모든 관객들은 모두 일제히 일어나 ‘베르디 만세 VIVA VERDI!’를 외쳤다. ‘VIVA VERDI’는 ‘Viva Vittorio Emanuele Re d'Italia! 이탈리아 왕 빅토리오 엠마누엘레 만세!’의 줄임말이기도 했다. 즉 걸으로는 베르디 찬미였지만 그 속뜻은 사르데니아 왕 엠마누엘레를 통일 이탈리아의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민중의 열망을 내포하고 있었다.

클 송중건

영국 런던 라반센터에서 무용정치학, 무용사, 무용미학을 전공하고「무용예술의 존재론적 특성과 비평」, 「무용 그리고 ‘움직임의 연기」, 「무용과 비평」 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무용과 오페라> 발행인겸 작가로 활동 중이다.



▲라 트라비아타 원작자, 알레산더 뒤마피스



▲라 트라비아타 초연 포스터- 베니스 라 페니체극장

리골렛토 초연 포스터- 베니스 라 페니체극장



▲라 트라비아타 주인공 실제모델 <마리 뒤플레시스 초상화>

조르주 드 라 투르의 다이아몬드 에이스로 속임수를 쓰는 사람

글_황주영

미술 칼럼니스트로 미술사와 정원사 관련 다양한 학회 논문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번역과 집필, 강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에이스로 속임수를 쓰는 사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놀이 중에서 화투나 카드놀이는 꽤 인기 있다. 친목이나 재미를 위한 것이라면 모를까, 돈이 걸리고 승패에 집착하면 위험한 도박이 되어 인생을 망치기도 한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뉴스에 사기도박 사건이 보도되고, 이를 주제로 하는 만화나 영화가 나오기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한탕’에 대한 유혹이 있는 게 아닐까. 동서고금을 막론했는지, 사기꾼의 술수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이의 모습을 담은 조르주 드 라 투르(Georges de la Tour, 1593-1652)의 <다이아몬드 에이스로 속임수를 쓰는 사람>에도 이런 교훈이 담겨 있다. 17세기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화가 조

르주 드 라 투르는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화가는 아니고, 실제로 서양미술사에서 20세기에서야 재조명된 화가이다. 프랑스 북쪽 로렌 지역에서 태어나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온 듯 하고, 왕실 화가가 되어 루브르에 머물렀다고 알려져 있지만 다른 화가들처럼 많은 사실이 알려져 있지는 않다. 후기에 그린 종교적인 주제의 그림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초기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다룬 ‘풍속화(genre painting)’를 주로 그렸다고 한다. 도박판 사기에 속아 넘어가는 모습은 일견 걸모습만 화려하게 꾸미고 향락에 치중하는 멍청한 이들을 조롱하는 일화 같지만, 이를 좀 더 들여다

보면 그 이상의 의미가 숨어있다. 기독교적인 도덕률이 남아있던 17세기 서양에서는 도박과 술, 욕정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제일 위험한 유혹이라고 여겨졌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카드놀이 도박과 와인, 아름다운 여인이 모두 등장해, 세 가지 유혹에 모두 넘어간 이 젊은이의 불운한 미래를 암시한다.

그림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세 사람과 시중을 드는 하녀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가만히 보고 있으려니 왼쪽에 있는 세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수상쩍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화면 오른쪽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자신의 카드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는 다른 인물들과 약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눈짓이 오가는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다. 세 사람은 눈빛과 표정, 손짓으로 사인을 열심히 주고받고 있는 데 말이다. 붉은 모자와 갈색 벨벳 드레스, 진주 장신구로 멋을 내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하얀 얼굴의 여인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데, 열심히 결눈질로 무슨 눈치를 주고 있는 듯하다. 오른손 검지를 약간 구부려 화면 왼쪽의 남자 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하다. 깃털달린 오렌지색 터번을 두른 하녀에게 그의 패를 알아내라든지 하는 사인을 보내는 걸까. 화면 맨 왼쪽에 있는 남자가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그녀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 남자는 모자도 안 쓰고 있고 머리도 대충 손질한 듯 헝클어져 있다. 입고 있는 파란색 새틴으로 장식된 가죽조끼도 옆에 있는 하녀보다도 초라하다. 카드를 왼 오른손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지만, 왼손으로는 등 뒤에 허리끈에 숨겨둔 다이아몬드 에이스 카드를 몰래 빼내며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슬며시 미소 짓는다. 마치 이제 테이블 위에 있는 금화가 곧 모조리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는 듯이 말이다. 도박사의 이런 음흉한 생각을 암시하듯,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다. 그러는 동안 화면 오른쪽에 있는 화려한 깃털모자와 비단 옷, 보석으로 잔뜩 멋을 내었지만, 어딘가 멍청해 보이는 젊은이는 멍하게 자신의 카드만 들여다보고 있다. 상대방의 표정으로 패를 읽어가며 게임을 해야 하는 도박판에 오늘 처음 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하녀가 막 포도주 한 잔을 테이블에 갖다 놓으려 한다. 이제 이야기는 보다 분명해진다. 아무것도 모르고 카드놀이를 시작한 오른쪽에 앉은 부유한 젊은이는 곧 술에 취할 것이고, 이 사기도 박판에서 가진 것을 모조리 잃을 것이다. 이는 앞서 카라바지오가 그린 <카드 사기꾼>의 이야기를 보다 분명하게 그린 것인데, 허리띠 뒤에서 카드를 꺼내는 동작이나 인물들이 활처럼 아치를 그리며 배치된 구도, 인물들 사이의 심리적인 긴장감 등이 유사하다.

이 그림은 한편으로는 드 라 투르가 비슷한 시기에 그린 <점쟁이>와도 주제 면에서 쌍을 이룬다. 여기에도 세상물정 모르는 어리숙한 부잣집 도련님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한 떼의 집시 여인들에게 당하고 있다. 가운데 있는 젊은이는 노파의 추한 모습이 보기 불쾌한 듯 얼굴을 약간 찌푸리고 있는데, 그런 것에 상관없이 그녀는 복채를 막 받아 들었다. 그가 한참 노파가 말해주는 점괘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에 그를 둘러싼 젊은 집시 여인들은 여기저기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있다. 화면의 가장 왼쪽에 있는 여인은 주머니에서 돈주머니를 빼내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옆모습만 보이는 여인은 손을 내밀어 그 돈주머니를 건네받으려 한다. 젊은이와 노파 사이에 있는 여인은 젊은이를 유혹하듯 바라보며 손으로는 부지런히 장신구 메달을 잘라내고 있다. 당장 코앞에서 벌어지고 일도 모르면서 먼 앞날을 알려 하는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젊은이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여러 가지 교훈을 전달해 준다.

드 라 투르 작품은 한 개의 촛불이 비추는 어두운 밤 장면이 대부분이고, 낮의 사건을 그린 작품은 얼마 되지 않는데, <다이아몬드 에이스로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그 중 하나이다. 이탈리아 바로크의 대가 카라바지오의 영향은 위대한 인물이나 종교, 역사적 주제를 벗어나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그린 주제 뿐 아니라 키아로스쿠로(chiaroscuro)라고 불리는 강렬한 명암 대조에서도 나타난다. 작품에서 인물들은 강한 빛으로 두드러지고, 옷과 모자 장식, 보석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밝고 선명하고 매끄럽게 빛나, 어두운 배경과 대비된다.



점쟁이



카드 사기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프로방스 공연예술축제

2013년 시작과 함께 저는 프랑스 파리에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꼭 시집가라'는 덕담을 듣지 못해서인지 더해진 '한 살'의 무게도 느끼지 못한 채 서울에서 인천 가듯 무감하게 파리행 유로스타에 몸을 실었습니다. 겨울의 파리는 또 얼마나 낭만적일까요? 눈 덮인 화려한 거리, 안개에 휩싸인 에펠탑, 오색 빛을 발하는 샹젤리제거리... 하지만 저는 그렇게 낭만적인 여인이 아닌가 봅니다. 파리에 도착한 저는 쿵쿵 냄새부터 맡았거든요. 다행히 겨울의 파리는 여름보다 냄새가 덜하네요. 그제야 슬며시 미소를 지어봅니다. '오 샹젤리제'를 흥얼거리며 제가 만났던 프랑스의 풍요로운 아름다움을 떠올려 봅니다. 이 땅에도 입이 떡 벌어지는 멋진 공연예술 축제가 넘쳐나거든요. 특히 이른바 '남불'에 몰려 있습니다. 혹시 올 여름 프랑스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한 겨울 파리에서 전하는 따뜻한 페스티벌 소식을 들어보시겠어요?



매혹의 땅, 프로방스 공연축제

프랑스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파리부터 말합니다. 그리고 유럽을 여행할 때면 파리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파리는 그저 프로방스 지역 공연축제에 가기 위한 '인-아웃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프랑스 남동쪽에 자리한 프로방스는 동쪽으로는 이탈리아, 아래쪽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지중해성 날씨로 뜨거운 햇살과 천혜의 자연, 그들이 빚어내는 다채로운 향과 색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 프로방스는 세계인이 주목하는 휴양지죠. 우리나라에서 바로 갈 수 있는 항공편은 없기 때문에 경유 편을 통해 '니스'로 들어가거나, 파리에서 니스까지 TGV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니스는 해마다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거리 페레이드가 일품인 '카니발'로도 유명하죠. 또 로마시대 건축 양식인 오페라극장에서도 연중 다채로운 클래식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엑상프로방스 뮤직 페스티벌

니스에서 버스로 3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 그들은 '엑스'라고 불렀습니다. 프로방스의 중심, 바로 '엑상프로방스'인데요. 엑스는 미라보 거리를 중심으로 500년 수령을 자랑하는 플라타너스와 도시 곳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수, 다채

로운 조각상들이 이방인의 눈을 빼앗는 곳입니다. 저야 물론 '공연 페스티벌'이 가장 중요하죠. '엑상프로방스 뮤직 페스티벌'은 7월 중 오페라와 콘서트, 리사이틀, 연극 등으로 구성돼 시내 공연장은 물론 주요 성당과 박물관에서 무대를 마련하는데요. 핵심은 역시 오페라입니다.

오페라 중에서도 메인 무대는 이 지역의 대주교가 거주했던 아르슈베세 궁전 안뜰에서 마련되는데요. 안뜰이기에 이것은 일종의 야외무대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자연 조명인 셈이죠. 그래서일까요? 연초부터 티켓 예매가 시작되는 터라 온라인(<http://www.festival-aix.com>)으로 티켓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예매 없이 현지에 도착했다면 먼저 관광안내소에 있는 티켓박스를 찾아야 합니다. 매진이라는 짜늘한 답변이 돌아오더라도 이른 포기는 금물입니다. 이제 궁전을 찾아 나서야죠. 공연은 밤 10시에 시작하는데, 9시쯤이면 관계자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현장판매가 시작되는데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쉴 새 없이 대화를 나누는 현지인들 사이에서 1시간 정도 버터내면 그 대가로 티켓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베르디의 <리골레토>와 모차르트의 <돈 조바니>, 슈트라우스의 <엘렉트라>, 카발리의 <엘레나>와 함께 멘돈카의 <The House Taken Over>가 초연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자막이 프랑스어라서 무대만으로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니, 충분한 예습이 필요합니다.



아비뇽 페스티벌

엑스에서 버스로 1시간 20분을 달리면 아비뇽에 도착합니다. 1309년 교황 클레멘스 5세가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긴 뒤, 약 70년간 7대의 교황이 머물렀던 곳이지요. 구시가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 사이로 들어서면 역시 거대한 플라타너스가 더위에 지친 관광객들을 반기는데요. 공연장에 작품들이 숨어 있던 엑스와 달리 아비뇽은 거리 전체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벽이나 건물은 포스터로 도배가 돼 있고, 나무들도 포스터를 주렁주렁 달고 있습니다. 굳이 공연장을 찾지 않아도 거리 곳곳에서 서커스와 마임, 노래와 연주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만날 수 있는데요. 요즘은 우리나라 팀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연극축제'라는 타이틀에 맞게 거리를 누비는 참가자들의 의상과 분장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교황이 살던 그토록 근엄했던 장소에서 이렇게 유쾌한 축제가 열린다는 게 더욱 재밌죠? 광장을 사이에 두고 노천카페에 앉아 있자니 수십 팀이 맛보기 쇼를 선사합니다. 광장에서는 몇 분 사이로 새 무대가 마

련되고, 새로운 관객들이 모여들어 박수를 치며 환호하죠. 공연장에서는 무료로 유료까지 다양한 콘셉트의 작품이 무대에 오르는데요. 이 많은 작품 가운데 한두 개를 고르는 것도 골치죠, 밤새 거리를 거닐며 세계에서 모여든 연극쟁이들의 기발함과 열정을 들이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해로 67회를 맞는 <아비뇽 페스티벌 (<http://www.festival-aix.com>)은 7월 5일부터 26일까지 펼쳐집니다.

직길 거리 넘치는 남프랑스

직장인이라면 일주일 휴가 내기도 힘들죠. 그 짧은 휴가에 해외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행에서 공연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프로방스는 지친 일꾼들에게 매력 만점의 여행지입니다.

일단 프로방스는 화가들이 남달리 사랑했던 곳이에요. 그들의 흔적과 작품, 그 작품의 배경이 된 곳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데요. 니스에는 마티스와 샤갈 미술관이 있고, 아를에는 고흐, 엑상프로방스에는 세잔의 숨결이 살아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프로방스를 내리쬐는 풍성한 태양은 대평원을 꽃과 열매들로 가득 메우는데요. 6월에서 7월 중순 사이 프로방스를 찾으면 매혹적인 보랏빛 라벤더와 샛노란 해바라기 꽃밭이 두 눈을 자극합니다. 줄줄이 늘어선 플라타너스와 체리나무, 올리브, 사과, 아몬드나무도 한 폭의 그림이 되어 감탄사를 자아내게 하죠. 뿐만 아니라 프랑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와인. 프로방스 곳곳에서 와인 투어에 참여할 수 있고, 지중해의 싱싱한 해산물도 입 안 가득 베어 먹을 수 있습니다. 공연에만 올인하겠다면 7~8월 앙티브에서 열리는 재즈 페스티벌 <Jazz A Juan>, 몽펠리에에서 개최되는 <Radio France Montpellier>, 오랑주의 로마시대 원형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Orange Opera Festival>에 참여하시고요. 파리를 들 경우 파리 하지 음악축제(6.21)나 쇼팽페스티벌(6.18 ~ 7.14)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배경이 된 오페라 극장 '오페라 가르니에

(Opera Garnier)' 에도 꼭 들러보세요. 이 극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화려함' 일 텐데요. 오페라 가르니에는 전체 면적만 만1,000㎡에 달하는 웅장한 건물로, 건물 밖에서는 외관을 둘러싼 유명 작곡가들의 수많은 조각상에 한 번 놀라고, 내부에 들어서면 중앙의 화려한 계단과 30m 높이의 천장, 상들리에 등 사치스러운 정도로 호화로운 장식에 두 번 놀라게 됩니다. 오페라 홀 천장에서 한껏 화사함을 뽐내고 있는 샤갈의 대작 <꿈의 꽃다발>도 빼놓을 수 없죠. 리허설이 없는 날은 공연장 안을 둘러볼 수 있는데요. 공연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오페라 가르니에가 루브르 박물관보다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도도하고 화려한 모습에 꼭 한 번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랍니다.

글_윤하정

KBS 앵커, TBC 방송기자들 방송활동과 YES24공연매거진등의 공연리뷰 및 인터뷰 기자로 활동 하였습니다 <지금 당신의 무대는 어디입니까>를 저술하고 현재 영국 유학중이며 유럽 공연기행을 준비 중입니다.



희대의 바람둥이 '돈 조반니'

농담 삼아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남자로, 그것도 여자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나쁜 남자로 살아보고 싶다고 한 적이 있다. 여자로 한번 살아봤으니 다음 생엔 남자로 살아보자고 단순히 생각한 부분도 있었고 이왕 남자로 태어난 이상 치명적 매력의 마성의 남자로 어느 곳에도 구속됨 없이 자유롭게 살아보는 것도 멋지지 않을까 우스개로 생각한 것이다.

흔히 나쁜 남자하면 희대의 바람둥이 이탈리아의 '카사노바(Casanova)'와 함께 스페인의 전설적인 바람둥이 '돈 후안(Don Juan)'이 떠오른다. 과연 어떤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기에 수많은 여성들을 유혹할 수 있었던 것일까. 모차르트의 오페라에 보면 <돈 조반니(Don Giovanni)>란 작품이 있다. 제목에서 짐작이 되지만 이 오페라는 무려 2065명의 여성을 사로잡았던 바람둥이의 대명사 '돈 후안'의 이야기를 이태리 오페라로 극화하면서 이름 표기만 돈 조반니로 바꾼 것이다. 천재성을 무기로 주위 시선 아랑곳없이 여성과 낯 뜨거운 대화를 나누고 이 여자 저 여자와 희희낙락하던 영화<아마데우스> 속의 모차르트의 이미지를 떠올려본다면 이 작품은 정말 모차르트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작품이 아닌가 싶다. 하기야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과장된 바람둥이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모차르트가 살았던 시대에는 상당히 부도덕한 그래서 사회적 저항이 커 함부로 다루기 힘든 소재였을텐데 모차르트였기에 감히 작품화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을 탁월한 음악성으로 예술적 가치 있는 작품으로 완성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돈 조반니는 수없이 많은 여자를 유혹하고 또 금새 지겨워하며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길 반복한다. 그의 이런 이력을 느낄 수 있는 아리아가 돈 조반니의 하인인 레포렐로의 아리아 ‘카탈로그의 노래(Madamina, il catalogo)’이다. 돈 조반니의 사랑을 되찾으려고 기를 쓰고 쫓아다니는 돈나 엘비라에게 레포렐로는 이 아리아를 부르며 자기 주인의 실체를 폭로한다. “이탈리아 여자가 640명, 독일에선 231명, 프랑스 여자가 100명, 터키 여자는 91명, 흠 그라운드인 스페인에서는 천 명하고도 셋. 온갖 신분, 갖가지 생김새, 별별 연령층의 여자가 다 있죠 ‘라며 이제껏 돈 조반니가 농락한 여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수첩을 펼쳐 보이며 그를 포기하라고 종용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자신의 주인의 난잡한 행실을 욕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부러워하는 뉘앙스로 노래하는 레포렐로의 모습이다. 이중적이면서도 재밌게 표현된 씬으로 이 오페라의 백미이기도 하다.

오페라는 돈 조반니가 기사장의 딸인 돈나 안나에게 반해 그녀를 겁탈하려다 실패하고 영겁결에 그녀의 아버지를 죽이는데서 시작된다. 하지만 살인을 저지르고도 또 다른 여성을 정복하는데 열을 올리는 돈 조반니. 급기야는 결혼식을 목전에 둔 시골 신부 체를리나까지 탐하고 이런 그의 거침없는 여성 편력은 농민의 봉기까지 일으킨다. 그리고 여기에 돈 조반니에게 버림받은 돈나 엘비라까지 복수를 하겠다고 가세하면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는데 이런 그의 호색 행각은 결국 석상

의 모습을 한 혼령과 마주하게 한다. 석상은 자기가 죽인 기사장의 혼령으로 돈 조반니에게 지금까지 저지른 거짓과 사기로 점철된 바람둥이의 삶을 참회하라는 요구를 하지만 돈 조반니는 끝내 한 치도 자기 삶에 후회가 없다는 듯 버티다 지옥불로 떨어지고 만다. 보통의 작품에선 사회적 규범을 거스르다가도 끝에는 보편적인 도덕성을 회복하고 구원을 얻지 않는가. 그런데 이 오페라는 그런 일반적인 결론이 아니라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리고보면 참 세련된 작품이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 모차르트의 오페라<돈 조반니>가 다른 오페라 작품들과의 다른 차별성을 갖는 점이 또 있다. 타이틀 롤은 돈 조반니지만 주역이 모두 8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돈 조반니가 20대의 젊은 청년임에도 테너가 아닌 중후한 바리톤이 그 역할을 맡았다는 점도 특이하고 주연이지만 제대로 된 아리아가 없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마치 여자를 꼬시느라 설새 없이 바쁘다는 듯 끝까지 가볍고 경쾌한 아리아만 돈 조반니에게 부르게 하고선 오히려 다른 많은 인물들에게 더 비중있는 아리아를 부여했다.

그러곤 각기 다른 개성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음악으로 표현해내고 있는데 오페라<돈 조반니>가 예술적 가치와 대중적 인기가 있지만 무대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겠다. 모차르트가 의도하는 음악적 색깔을 구현해낼 8명이나 되는 주역을 그만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레포렐로의 ‘카탈로그의 노래’ 외에도 오페라 속에는 돈 조반니와 체를리나의 이중창 ‘손을 잡고 함께 가요(La ci darem la mano)’ 나 돈나 안나의 연인 돈 옥타비오의 아리아 ‘내 연인을 위로해주세요(Il mio tesoro intanto)’ 돈나 엘비라의 ‘그는 나를 배신했지만(Mi tradi quell'alma ingrata)’ 등의 아름답고 경쾌한 멜로디가 많이 있다. 들어보면 모차르트가 만들어낸 완성도 높은 음악의 힘을 느낄 수 있는데 사실 돈 조반니가 비열한 바람둥이라 미움을 살 수 있는 캐릭터 아닌가. 하지만 모차르트의 음악이 그를 너무나 매력적인 자유로운 영혼으로 표현해내 2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오페라<돈 조반니>를 사랑받는 오페라로 자리하게 한 것이 아닐까 싶다. 희극과 비극을 오가며 장장 3시간이 넘게 진행되는 오페라를 지루하지 않게 보게 하는 힘, 그것이 모차르트 음악의 힘이다.

글 김수연

KBS울산 라디오 「러브 클래식」등, 라디오·TV프로그램 진행 및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2012년 하반기

아트클래스 수료식 및 기념 발표회

3월 12일 19:30 문화예술



Art Class



아트클래스 운영

- 기간 4. 1 ~ 6. 30 (3개월, 주1회 12주 과정)
- 내용 『미술의 이해』 : 25명
『클래식 음악의 이해』 : 30명
『성악 클래스』 : 30명 (1·2반 각 15)
『전통(무용, 국악)클래스』 : 학교 및 기관 신청에 의함
- 접수기간 3. 11 ~ 3. 15(5일간)
- 접수방법 회관 홈페이지

Art Class

미술의 이해

- 강사 김은경
- 학력 영남대학원 박사과정 철학과 (예술철학)수료
- 수강료 무료
- 운영방법 기간 : 4. 3 ~ 6. 20 (매주 수요일, 14:00)
장소/인원 : 2층 회의실/25명
내용
- 동서양 미술 이해, 미술감상법등
*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 전시장
도슨트 활동기회 부여



클래식 음악의 이해

- 강사 이종은 (바이올리니스트)
- 학력 미국 줄리아드 음악대학 석사과정 및
뉴욕주립대 스토니부룩 음악대학 박사과정 졸업
현)울산과학기술대학교 조교수
- 수강료 무료
- 운영방법 기간 : 4. 4 ~ 6. 21(매주 목요일, 14:00)
장소/인원 : 2층 회의실/30명
내용
- 음악사조, 음악감상법 등 클래식 음악에 대한
- 전반적인 사항 (이론 및 감상체험 등)



성악 클래스

- 강사 울산 시립합창단원 I 반 김은혜(소프라노), II 반 배수완(테너)
- 수강료 100천원(회관회원 30%할인)
- 운영방법 기간 : 4. 3 ~ 6. 21(매주 수, 목 19:30)
장소/인원 : 앙상블 2 연습실 / 30명 (I·II반 각 15명)
내용
- 성악발성 및 음악 기초 지식,
- 이태리·독일어 디션(diction)

※ 디션(diction) : 성악에 사용되는 시를 노래하는 방법

전통(무용, 국악)클래스

- 강사 울산 시립무용단원
- 수강료 무료
- 운영방법 기간 : 년 중
장소/인원 : 신청 학교 및 기관의 다목적 공간
대상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2. 27 ~ 6. 19)
※관내학교 및 기관 신청(전화및 방문)에의함
내용 : 한국무용, 국악기 체험, 사물북 등

Performances

남구 구립교향악단 3월 신춘음악회

일 시 | 3. 5(화)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남구 구립교향악단

■ 공연개요

클래식 및 합창음악을 통해 울산시민들의 정서 함양 및 지방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며 서곡 및 교향곡, 기악곡, 합창곡 등을 연주

■ 프로그램

- 오케스트라 연주
- 바리톤 협연
- 합창단 협연
- 소프라노 협연 등

Ark Ensemble (Ark Piano Trio & Ark Flute Quartet)

일 시 | 3. 5(화)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

주 최 | Ark Ensemble

■ 공연개요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piano trio와 플루트로 이루어진 콰텟(피콜로, 플루트, 알토, 베이스)로 클래식 음악과 영화음악으로 울산 시민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고자 연주회를 개최

■ 프로그램

- Kuhlau Piano Trio in G Major, Opus 119
- The Nutcracker - Suite Op. 72a 중
 - * March
 - * Dance of the sugar-plum fairy
 - * Trepak
 - * Arab Dance
 - * Arab Dance

2013 JCN 신춘음악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일 시 | 3. 9(토)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V/45,000 · R/35,000 · S/25,000

주 최 | 좋은날음악기획

■ 공연개요

금난새 & 유라시안 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JCN 울산케이블 방송 개국 축하 음악회

■ 프로그램

- 비발디 사계 中 봄
- 현을 위한 아다지오
- 세계 명작 시리즈(해설)

제3회 행복나눔 메세나 페스티벌

일 시 | 3. 9(토) 15: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 공연개요

행복나눔 메세나 사업을 통해 복지대상자로 인식되었던 장애인, 노인, 아동, 다문화 여성들의 문화컨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축제로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 프로그램

- 합창 : **☞** 사랑실버합창단(노인복지관)
- 방송댄스 : 악동클럽(태연재활원)
PIANO(메아리동산)
- 밴드공연 : 목요일오후4시(소호지역아동센터)
- 합창 : YWCA여성합창단(울산YWCA)
이삭어린이합창단(이삭지역아동센터)
- 연극 : 내인생의황혼기1막2장(동구노인복지관)

가야금과 해금의 조화로운 “봄의 소리”

일 시 | 3.10(일) 17: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엄현숙

■ 공연개요

해금산조, 가야금 산조, 창작음악으로 국악 해금·가야금의 어울어지는 소리를 관객들에게 들려주고자 함

■ 프로그램

- 상주 합창 변주곡
- 가야금 솔로를 위한 ‘나비’

- 해금과 25현 가야금을 위한 ‘다람쥐’

- 해금독주를 위한 ‘자장가 춤’

- 가야금과 해금을 위한 ‘놀이’

울산대 음악대학 제12회 관악정기연주회

일 시 | 3.12(화)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 공연개요

다이나믹한 금관악기와 세밀한 목관악기의 조화에 다양한 타악기로 아름다운 선율을 전달하는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관악 전공 학생들의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 Overture “Die Fledermaus”
- Trumpet Concerto
- The Symphonic Beatles
- John Williams in Concert
- American Graphity I

SAZA 최우준 BLUES TRIO

일 시 | 3.12(화) 20: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40,000

주 최 | (사)열린문화협회

■ 공연개요

와일드한 헤어스타일과 파워풀한 기타웍으로 사자(Saza)라 불리는 재즈 기타리스트이자 블루지함이 가득한 목소리를 가진 개성파 보컬리스트 최우준의 수준 높은 재즈 부르스 콘서트

■ 프로그램

- Autumn Blues
- 웃는 당신은 슬프죠
- 남자A
- Foolish Morning
- 어쩌란 말입니까 외 7곡

울산불교사찰합창단 신춘음악회

일 시 | 3.14(목) 19: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울산정토사

■ 공연개요

울산 불교합창단의 신춘음악회

■ 프로그램

- 불교합창단 연주 6팀
- 남성성악 앙상블 <이엔아이>
- 국악 실내악단 공연
- 남성 성악 앙상블 <붓다>
- 정율 스님 <성악가>

2013 초특급 애니뮤지컬 “로보카폴리”

일 시 | 3.16(토) 11:00/14:00/17:00
3.17(일) 11:00/14: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R/50,000 · S/40,000 · A/30,000

주 최 | 오름기획

■ 공연개요

아이들의 우상으로 떠오른 애니메이션 “로보카폴리”의 뮤지컬 작으로 비폭력적이고 다양한 직업체험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공연

■ 공연내용

아름다운 브롬스 타운에 1년에 한번 뿐인 뽀내기 대회를 앞두고 친구들은 자신을 마음껏 자랑할 생각에 점점 에너지가 낭비되기 시작하고, 폴리구조대는 친구들을 모아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고 설득해 보지만 “나 하나쯤 어때”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 결국 뽀내기 대회는 커녕 마을에 불 빛 하나 켤 수 없는 긴급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아리랑보존회 서순화 정기공연

일 시 | 3.21(목)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한국경기민요 보존회

■ 공연개요

경기민요의 전반적인 곡목을 스토리텔링과 접목하여 하나의 에피소드 형식의 경기민요 역사 스페셜 퍼포먼스 공연

■ 프로그램

- 잡 가 : 경기 12잡가 중 소춘향가
- 민 요 : 노래가락, 한강수타령, 청춘가 등
- 김영임 명창의 회심곡
- 무용 등

어린이 율동놀이 뮤지컬 “호비쇼 3”

일 시 | 3.23(토) 11:00/14:00/16:00
3.24(일) 13:00/15: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R/35,000 · S/30,000

주 최 | 극단화랑

■ 공연개요

아빠, 엄마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친구와 이웃과 함께 즐기며 동참하는 아름다운 가족형 뮤지컬

■ 공연내용

바닷가 첼린지 마을에서 떼쟁이는 등대의 빛이 탐이나 몰래 등대의 빛을 가지고 바다로 나가고, 호비는 등대의 빛을 대신할 수 있는 대왕조개의 진주를 구하기 위해 떠난다. 튼튼아저씨와 라무, 베니는 호비가 올 때까지 햇님이 저물지 못하게 해님과 수수께끼를 푸는데....

제1회 울산 색소폰 페스티벌

일 시 | 3.24(일) 14: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사)한국국악예 예술인협회
울산광역시지회

■ 공연내용

1부 : 색소폰 솔로 공연

2부 : 색소폰 앙상블의 공연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일 시 | 3.30(토) 11:00/14:00/16:00
3.31(일) 13:00/15: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20,000

주 최 | 극단 중원극회

■ 공연개요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도로시와 허수아비, 사자, 양철 나무꾼이 재밌고 지루하게 펼쳐는 위험

과 모험이 담긴 어린이 뮤지컬 공연

■ 공연내용

캔자스주에서 아저씨 아주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소녀 도로시, 그러던 어느 날 무시무시한 회오리 바람에 날려 마법의 나라에 날아가게 된다. 뜻하지 않게 도로시는 여행길에서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사자를 만나 동행하게 되며 갖가지 위험과 모험이 담긴 여행이야기

세계 최정상의 이탈리아 앙상블 첫 내한공연

일 시 | 3.31(일)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V/150,000 · R/120,000
S/100,000 · A/80,000

주 최 | 꼬레몬도

■ 공연개요

이탈리안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국내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반도네온, 만돌린, 아코디언으로 독특한 편곡하여 정열과 도발의 선율인 탱고와 아름다운 서정을 간직한 샹레모 칸초네를 통해 열정적인 이탈리아를 느낄 수 있는 공연

Exhibition

제6회 대유연서회 회원전

기 간 | 2. 28(목)~3. 5(화), 6일간
장 소 | 제1,2,3전시장
주 최 | 대유연서회

■ 전시내용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인 서호 이권일의 문하생으로 구성된 대유연서회의 창립 30주년 기념 전시로, 서예, 문인화, 전각, 도예 등 다양한 서예작품 200여점 전시

제1회 서미희 개인전

기 간 | 2. 28(목)~3. 5(화), 6일간
장 소 | 제4전시장
주 최 | 서미희

■ 전시내용

대한민국 미술대전과 각종 공모전의 입상에 힘을 얻어 마련한 첫 번째 개인전으로 전통 문인화, 화조화, 사군자, 전각 등 다양한 서예작품 45점 전시

김경옥정광심 부부 서예전

기 간 | 3. 7(목)~3. 12(화), 6일간
장 소 | 제1전시장
주 최 | 김경옥

■ 전시내용

성전 정광심 고회기념 부부 합동전으로, 명언, 경구 등 한문과 한글 서예작품 100여점 전시

제1회 유경묘 개인전

기 간 | 3. 7(목)~3. 12(화), 6일간
장 소 | 제4전시장
주 최 | 유경묘

■ 전시내용

7여년간 틈틈이 촬영한 울산 근교를 비롯해 전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사진작품 40여점 전시

제2회 한국난문화협회 울산협회전

기 간 | 3. 8(금)~3. 10(일), 3일간
장 소 | 제2,3전시장
주 최 | 한국난문화협회 울산협회

■ 전시내용

한국난문화협회 울산협회 승격 이후의 두 번째 연합전시로, 한국춘란 화예품 및 엽예품, 일본춘란, 중국춘란, 석곡, 풍란 등 야생란, 동양란 전반의 작품 350~400여점 전시

제2회 굿 포토클럽 회원전

기 간 | 3. 28(목)~4. 2(화), 6일간
장 소 | 제1전시장
주 최 | 굿 포토클럽

■ 전시내용

울산에서 활동하는 전문작가 및 취미로 활동하는 사진가들로 구성된 굿 포토클럽의 두 번째 정기전으로, '길'이라는 주제의 창립전에 이어, '물'을 테마로 한 심오하고 창의적인 사진작품 60여점 전시

제1회 고통희 개인전

기 간 | 3. 28(목)~4. 2(화), 6일간
장 소 | 제2전시장
주 최 | 고통희

■ 전시내용

점이나 선, 기하학적인 한국의 전통 문양을 통해 오래전 우리 선조들의 민족 정서와 미적 감각, 한국적인 독특한 멋들을 현대적인 작업으로 재해석한 현대미술작품 25점 전시

일산진마을 이야기 사진전

기 간 | 3. 28(목)~4. 2(화), 6일간
장 소 | 제3전시장
주 최 | 김중훈

■ 전시내용

울산 동구 일산진 마을 토박이 인물이 담은 영상물과, 1970~80년대 시대적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일산진마을의 풍경, 일상 등 마을의 문화와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사진작품 70여점 전시

제4회 손유태 개인전

기 간 | 3. 28(목)~4. 2(화), 6일간
장 소 | 제4전시장
주 최 | 손유태

■ 전시내용

한지와 먹, 아크릴 등 복합 재료를 이용하여 실험적이고 다양한 현대 회화작품 30~40여점 전시

당신의 불링불링한 ART 스타일 완성!



Always with you

항상 당신의 가까이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삶의 소중한 여유
가슴속에서 퍼져 나오는 감동
울산문화예술회관이 함께 합니다.

☘️ 문예회원에 가입하시면 공연정보와 할인혜택이 솔~솔~

회원의 종류

가입 기간	일반회원 (만19세이상)	가족회원 (4인가족)	청소년회원 (만7세이상~만18세이하)	단체회원 (10인기준)	비고
1년	20,000	40,000	10,000	100,000	
3년	50,000	100,000	25,000	250,000	15%할인
5년	80,000	160,000	40,000	400,000	20%할인
10년	150,000	300,000	75,000	750,000	25%할인

※ 단체회원은 1인 추가시 10,000원

회원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간

가입방법

- 인터넷 : 회관 홈페이지(<http://www.ucac.co.kr>)
- 전 화 : 052)226-8274
- 방 문 :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 대공연장 매표소
※ 전화·방문 가입은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가능하며, 홈페이지에도 가입을 하셔야 회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비납부 회원가입하실 때 납부

- 인터넷 가입시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은행납부 : 경남은행 540-07-0183857 / 회원가입비(문화예술회관)
※ 은행납부는 지정계좌 입금 후 전화로 확인

회비납부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무료 우송
- 회관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시 30%이내 할인
(일반회원 2매, 청소년회원 1매, 가족회원 4매, 단체회원은 본인에 한함)
- 울산문화예술회관 주최 아트 클래스 등록 시 30%이내 할인
- 울산문화예술회관 주최 초대공연 시 초대권 우송
- 회원을 위한 특별기획공연 초대
- 대관공연 시 주최 측과 협의하여 5%~30% 할인혜택 부여(일부 대관공연제외)
-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회원가입비 10%, 회관주최 공연 입장권 5%)
※ 마일리지 포인트로 회관 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가능
- 이메일 및 SNS로 공연정보 제공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052-226-827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친구가 되어 주세요!!

- 울산문화예술회관 트위터(@ulsanart)와 페이스북(ID:Ulsanartcenter)에 친구 신청을 하시면 빠른 티켓 오픈 정보와 공연, 전시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ucac.or.kr)를 방문하시면 친구 신청이 쉬워집니다.

K.D 슈퍼스타

울산시립무용단 기획공연

3. 22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